

견디다 못한 고교 교장들 “차라리 야사 폐지를”

〈야간자율학습〉

진보진영 지탄에 광주 중등 교장단 워크숍서 하소연

“전국 동시 폐지” 요구...장 교육감 “타 시도와 협의”

“보통수업만 하고 (야간) 자율학습은 없애달라.”(사립고 교장)

“진짜 그렇게 (야간자율학습 폐지) 하면 따르겠는가? 그렇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하겠다.”(장휘국 교육감)

“광주만 해서는 어렵고,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뜻을 모아 자율학습을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달라.”(사립고 교장)

“좋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제안하고 논의해 보겠다.”(장휘국 교육감)

광주 일반계 고등학교 야간자율학습 폐지 논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열린 광주지역 중등 교장단 워크숍에서 전국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이다.

14일 광주시교육청과 광주지역 고교 교장들에 따르면 지난 12일 영암군 삼호면 호현현대에서 열린 ‘광주지역 중등 교장단 워크숍’에서 야간자율학습 문제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결론은 인성교육을 위해서는 야간자율학습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만, 광주만 폐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보교육감들이 뜻을 모아 전국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립고 교장들이 야간자율학습 폐지 문제를 먼저 꺼냈다.

사립 A고 교장은 “일반계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밤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안 좋은 측면만 부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우리도 저녁을 가족과 먹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계고 3학년 담임은 밤 늦게까지 고생하는데 보상은 커녕 참교육 위반과 인간성 말살의 주범으로 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립고도 자율학습을 좋아해서 하겠느냐”며 전국적으로 경쟁하는 구도에서 우리만 안 할 수는 없기에 전국의 진보교육감들이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다른 시도는 광주 때문에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있다고 핑계댄다”며 “전국 진보교육감들이 뜻을 모으면 따르겠는가. 그렇다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장 교육감은 현재 시행 중인 ‘밤 10시 이후 야간자율학습 금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뒤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잇따르고 있어 지도점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히 여름방학 동안 강제 자율학습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여름방학기간 교육활동 규정을 담은 ‘정규수업 이외 교육활동 지침’을 조만간 일반계고에 내려보낼 예정이다. 지침에는 고교 1~2학년의 경우 방학동안에 자율학습은 할 수 없다. 3학년은 희망자에 한해서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학교 도서관은 밤 10시까지 개방한다. 또 토·일요일은 등교가 전면 금지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같은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야간자율학습이 폐지되면 광주의 학력은 곤두박질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수능이 존재하는 현 임시제도에서 자율학습이 폐지되면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런 경우 사교육 환경과 경제적 여건이 월등히 좋은 수도권 학생들이 광주·전남 등 지방보다는 상대적으로 유리해지고 광주의 학력은 추락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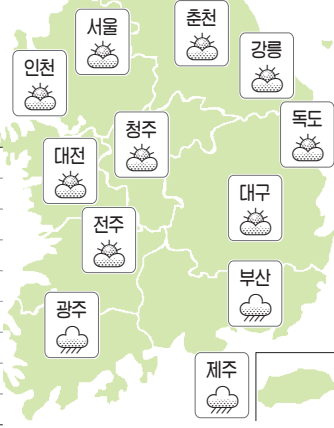
해돋이 05:29 해질 19:47
해질 21:43 달 뜨기 08:32

반갑다. 단비!

반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다음날까지 이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

◇지역별 날씨 (℃)

광주	비	22/29	보성	비	20/27
목포	비	21/27	순천	비	21/29
여수	비	22/26	영광	비	21/28
나주	비	21/28	진도	비	21/27
완도	비	21/28	전주	구름많음	21/30
구례	비	20/29	군산	구름많음	21/27
강진	비	21/28	남원	구름많음	20/29
해남	비	21/28	속산도	비	21/26
장성	비	20/28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서해	남부	남~남서	0.5	남동~남	0.5
	면바다	남~남서	0.5~1.0	남동~남	0.5~1.5
남해	남부	남~남서	0.5~1.0	남서~서	0.5~1.0
	면바다	남~서	1.0~2.0	남서~서	1.0~2.0

◇물때

목포	밀물		썰물	
	09:25	21:33	04:18	16:26
여수	11:03	23:37	04:56	17:00

◇주간 날씨

16(수)	17(목)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	☁	☁	☁	☁	☁	☁
21/31	23/28	24/29	24/31	24/31	24/32	24/32

◇생활지수

식중독	73
운동	30
빨래	70

■ 광주지법, 양동시장 ‘법문화강좌’ 가보니

“거래처 연락 두절땀 이렇게 하세요” 상인들 자금회수 방법 진지한 경청

사법연수생들 법률상담도

“거래처에서 물품 대금을 주지 않고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면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서 드러누워야죠.”

14일 오후 광주 양동시장 내 신협 교육관에서 판사와 상인들이 열린 토론을 벌이는 낯선 광경이 벌어졌다.

광주지방법원이 이날 양동시장 상인 50여명을 대상으로 ‘갑자기 거래처에서 수금이 되지 않는다면?’이라는 주제의 무료 법률 강좌를 진행한 것이다.

강의에는 ▲재판의 종류·절차 설명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스러운 서민을 위한 법원 소송구조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안내도 포함됐다.

앞치마와 작업복 차림으로 교육장에 들어선 상인들은 ‘수금’을 주제로 한 강연 단계 중간 중간 질문을 하고 메모도 하면서 2시간 동안 이어진 강의를 경청했다.

상인들의 질문은 “민사소송의 시효는 언제까지인지”,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자금 회수에 집중됐다.

강의 뒤엔 사법연수생들이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 나선 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별로 딱딱하게 느낄 수 있는 법원이 국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직군별로 찾아가는 법문화 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지법은 앞으로 상가 임대차, 가압류·가처분, 경매 등과 관련해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네 차례 더 강좌를 하고 법원으로 초청해 법정도 견학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광주지법은 지난달에는 택시·버스 기사를 상대로 교통사고 등 분쟁 관련 강좌를 하기도 했다.

/백희준 수습기자 bhj@kwangju.co.kr



14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 신협 교육관에서 열린 ‘찾아가는 법문화 강좌’에 참가한 광주지방법원 공보판사 등이 상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이날 강좌는 광주지법 주최로 열렸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법원, 남광건설 법정관리 개시

공동관리인에 김대기·김선재씨...계열사 태웅건설도

광주지법 파산 6부(부장판사 박강희)는 14일 남광건설과 그 계열사인 태웅건설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다른 계열사인 정운건설과 우용건설의 회생절차 신청은 “기업을 청산해 생기는 가치가 계속 경영하는 것보다 높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남광건설에 기존 경영인인 김대기 대표와 제삼자인 김선재씨를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기업 경영의 연속성을 위한 기존 경영자 관리 제도의 취지, 기업의 규모를 고려해 김 대표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조사위원의 조사결과, 채권자 협의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제삼자 관리인을 함께 선임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태웅건설엔 제삼자 관리인인 진형우 씨가 선임됐다.

남광건설은 지난해 7월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시공능력 평가액이 1130억원으로 광주·전남 도급순위 21위, 전국 166위에 올랐다. 그러나 건설경기 불황, 수주·사업 다각화 실패 등으로 유동성에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며 지난 4월 초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영산강환경청장 “큰빛이끼벌레 조만간 생태조사”

박용렬 영산강유역환경청장은 14일 영산강 등 전국 하천에서 발견되고 있는 큰빛이끼벌레 논란과 관련, 환경부 차원에서 조만간 생태조사 계획 발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날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영산강 상류지역인 광신보 유역에서 최근 발견된 큰빛이끼벌레에 대해 “큰빛이끼벌레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진 바 없

다”면서 “논란이 이는 만큼 환경부에서 직접 조사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청장은 앞서 이날 오후 광주지역 언론사 보도·편집국장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큰빛이끼벌레는 지난 1990년 대부분 우리나라 전역의 하천에서 발견된 생물체로 외국에서 건너온 외래종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ABC협회 인증 호남 최대 발행부수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www.yh-bus.com

예향 고속관광과 함께 떠나요!

힐링여행

회사 출·퇴근 버스임대 - 여행지 사전예약
단체여행 버스대절 - 최신버스 저렴한 가격
최상의 서비스 및 예약자 선물증정

예향 고속관광
YEHYANG TOUR

고객상담 및 예약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동 805(혹석사거리)
TEL.062.944.5775 FAX.062.944.5995

Advanced Partner

보청기 사업부 인증 프리미엄 전문점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OPEN 특가 이벤트!

상담만 받아도 배터리 1팩 제공
최신 청력평가 장비 도입
청각학 석사 전문가 무료 상담

SIEMENS
지멘스보청기 프리미엄 상무점
(마래로메디스유) 보청기사업부
문의전화 062)376-1010

시청

지멘스 상무점
학림빌딩 501호
농림(문선지점)
이비동감자점